예배당보다 현장이 먼저다

(에스겔 24:1~27)

1.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3.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4~5. 건 후에 물을 붓고 양 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예배당보다 현장이 먼저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예배당보다 현장이 먼저다'
언젠가 후배 목사님과 현재 대한민국 교회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적 가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공통분모는 숫자입니다. 숫자가 본질은 아니지만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숫자가 되는 이유는 모두가 숫자를 늘리기 위해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쓴 보람도 없이 숫자가 줄어들기에 문제시 되는 것입니다. 숫자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숫자를 늘리려고 한 의도가 잘못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 인구는 한때 1,200만 명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600만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을 25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총회에서는 250만이라는 숫자도 허수가 많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후배 목사님이 문제만 제기했지 해결 방안이 없으니 짜증이 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머쓱해진 저는 본인이 해답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모르겠어서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로 무엇일까요? 루터 시절처럼 교황 1인 지배체제에 있었다면 그것을 타파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그런 식의 변화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로부터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예배당과 교회를 분명히 구분하는 절차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배당은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예배당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이용해서 전도를 하다가 박해로 인해 회당을 사용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기독교계에서는 예배당과 교회를 일치시키는 오류가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오류부터 바로 잡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동선이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이 기준으로부터 신앙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재해석해나가야만 합니다. 하늘과 땅을 이으신 예수님의 동선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개념이 재정립되고 모든 사상이 분별되고 판단 받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교회는 마음을 십자가 너머로 보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배당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이 있어야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기록된 대로 신약 성경에서의 모든 모임은 집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집안에서 모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모임이 극히 현장중심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님의 동선에 맞추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문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교계는 이러한 현장중심의 신앙 대신 예배당중심의 신앙을 강요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을 예배당에 불러들여서 머물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신앙생활은 무시되고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도행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예수님의 동선은 완전히 잊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기를 강조하고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성도들에게 전도를 강요한 결과로 개신교는 일시적으로 1,200만이라는 숫자에 이를 수 있었지만 실제 성도는 250만 명을 헤아리는 지경으로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숫자가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추구해왔던 방향과 너무나 반대되는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활성화되고 강화되기 위해서라도 삶의 현장에서의 신앙생활은 살아나야만 합니다. 십자가 복음방송은 모임을 따로 갖지 않고 방송만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성도들 중에는 함께 모임을 갖기 바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정기적 모임 등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느끼는 바는 예배당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도울 때에 예배당에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해본 성도들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딜 정도입니다.

이것이 예배당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마음에서 예배당보다 삶의 현장이 우선되어야 하고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당에 출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오히려 성경공부를 통해서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삶에 적용할 수 없는 교리 지식만을 잔뜩 가진 무력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은 십자가를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어떤 봉사를 하는지는 나중 이야기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오히려 예배당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모임도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세계 각지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배부르기를 원하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며 마음을 십자가 너머로 보낸 분들이 교회입니다. 십자가 너머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외면한 채 지역에 있는 예배당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고 모임을 강요한다면 예배당에서의 모임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 왕국 유다가 망하는 계기가 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BC.588년입니다. BC.588년 1월에 시작된 포위는 18개월이 지속되다가 BC.586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되며 남 왕국 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600km나 떨어져있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바로 그날 에스겔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상황을 알게 하십니다.
주어진 내용이 바로 끓는 가마의 비유입니다. 가마에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각을 떠서 넣고 뼈가 무를 때까지 삶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가마는 예루살렘이고 땔감은 바벨론이고 각을 뜬 양은 유다의 지도자층을 의미하며 가마에 붙은 녹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즉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비유로 삼아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성전이 파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선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성전 생활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아내의 죽음이 성전의 파괴를 상징하게 된 이유는, 선민과 성전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맺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관계는 아내입니다. 아내라는 존재는 에스겔의 일상을 늘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도 결혼 할 때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마음으로 뜻으로 행동으로 함께 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생활화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아내로 비유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

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 예언됩니다.
성전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기 위해 택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선민들은 이러한 성전에 미신적 의미를 담아 섬기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결코 이방인들의 침입을 받지 않고 성전이 건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나라도 영원하리라는 미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질된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심으로써 아내로 비유하시고 아내의 죽음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성전의 성소의 구조를 살펴보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앞에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뜰, 유대인 여자들의 뜰, 이방인의 뜰이 나타났습니다.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요 가장 거룩하게 구분된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법궤가 홀로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전이 선민 각자에게는 아내처럼 일상에서 마주하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아내의 죽음과 성전의 파괴를 동일시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어떻게 생활화되어야 했을까요?
성전과 삶의 현장은 거리적으로 떨어져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어디에 있든지 마음에는 아내가 항상 존재하듯이 선민과 성전은 부부관계처럼 함께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배우자는 생활화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로 묶여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생활화라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부부로써 남편은 아내를 사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사는 것입니다.
성전의 생활화도 이와 같았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도 부부가 서로를 살듯이 마음으로 성전을 살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들은 성전에 대해 부부의 친밀함을 갖지 못한 채 미신적 의미를 부여하여 이용하려 하였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선민은 삶의 현장에서 성전을 사는 사람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려면 서로 마주보아야 하듯이 선민은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매일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이 이러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난을 다니던 시절에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한 것도 이와 같습니다. 선민의 삶의 현장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든지 마음은 성전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봄이 없이는 성전을 생활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는 성전의 구조를 생각해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성소 내부에는 휘장으로 나누어진 장소에 지성소가 있었고 그 앞에는 분향단과 떡 상과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선민들은 누구나 이러한 성전의 구조를 귀가 따갑도록 듣고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하나님의 법궤만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들어와도 안 되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사업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돈이 들어와도 안 됩니다. 선민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법궤만이 들어와 있는 지성소와 같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지성소를 생각할 때에 마음의 거울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만이 계셔야 하는데 가족도 들어와 있고 사업도 들어와 있고 온갖 근심걱정이 들어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은 마음의 지성소를 하나님만이 계시는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존재한 것이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에서 아침저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를 통해 어린양과 나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이외에 땅의 것들을 들여놓은 마음을 죽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성소의 본래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성전을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해진 마음에서는 분향단과 떡 상과 등잔대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뜻합니다. 기도란 단순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선민들이 살면서 갖게 되는 추구함과 소원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추구하게 됩니다. 떡 상이 의미하는 대로 마음의 배부름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만족해서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등잔대는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는 상태가 될 때에 하나님의 판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단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기초가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이 아니기에 오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오류에 의지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갖는다면 정말로 좋아해야 될 일을 좋아하지 못하고 슬퍼해야 할 일을 슬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배부를 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을 받아 올바른 지정의의 활동을 해나갈 수 있게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돈을 담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향단의 의미대로 돈을 추구하게 됩니다. 떡 상의 의미대로 배부를 때까지 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란 하나님과 다르게 본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채워도 마음을 온전히 채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마음은 항상 허기진 상태에서 등잔대의 의미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겨난 불완전한 판단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마음의 지성소에 자녀의 형통을 담은 부모가 있습니다. 이 부모는 마음이 배부를 때까지 자녀의 형통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형통은 본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에 결코 마음의 배부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음은 항상 배고픔을 느끼는 상태에서 불완전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지정의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활동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전을 생활화하지 않았던 선민들의 모습이었고, 성전 생활화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삶의 현장에서 생활화하는 것이야 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민들로 하여금 일 년에 세 번씩 절기를 따라 성전에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성전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보고 그 모습을 각인시키라는 의미였습니다. 성전은 단지 모이기 위해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성전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죽은 아내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모이는 것만이 믿음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구약에서 성전이 세워진 의미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 건물은 구약에서처럼 성전의 구조를 재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배당은 어디까지나 성도들이 모이기 위한 장소일 뿐입니다. 결코 거룩하거나 성스러운 곳이 아닙니다. 어느 한 집에 모이더라도 성도들이 모였다면 그곳이 예배당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십자가 너머에 마음을 보낸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이지 예배당 건물 자체에 어떤 거룩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한 복판에서 말씀을 나눈다면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서로의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상대방의 믿음을 돕기 위해 만나는 것이 모임의 목적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예배당 중심의 모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십자가 너머로 마음을 보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몇 사람이 모였다면 교회 안에서 모임이 생겨난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모임 자체도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돕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은 삶의 현장으로 옮겨가야 할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십자가 생활화를 할 것이냐 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십자가의 예표이자 설계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구약의 성전이 구체적으로 풀어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생활화해야만 이유는 우리의 원죄의 체질이 계속해서 마음에 세상을 들여놓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계시고,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무지갯빛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장에 출근하면 일이 마음을 사로잡고, 집에서는 자녀의 문제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 문제

로 인해 고민합니다. 크고 작은 세상의 일들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만 합니다.

사업장에서 이런 저런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이 잘못 되었음을 깨닫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십자가의 설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전의 의미를 생각하며 마음을 본래 있어야 할 지성소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의미기도 합니다. 지성소에 법궤만이 존재하듯이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계신 것이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지성소가 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온갖 대상이 들어오는 내 마음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서 지성소의 모습을 회복한 마음에서는 분향단과 떡 상과 등잔대의 의미도 회복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여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과정은 분향단의 의미대로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하여 하늘을 향하는 것입니다. 또 떡 상의 의미대로 하나님으로 배불러지게 되면 등잔대의 의미대로 하나님의 판단이 주어지게 됩니다. 내 지정의에 하나님의 판단이 임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고, 나의 감정에 하나님의 감정이 임하고, 내 의지 안에 하나님의 의지가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육신으로 대하는 세상의 일들도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선민이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풍랑 같은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하늘로 보낸 자들은 예수님처럼 풍랑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스스로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했을 텐데 풍랑 속에서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편안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고 싶은 바람이 생겨납니다. 그런 분들이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신앙적으로 괴로워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어 하는 이들에게 십자가 생활화의 힘과 결과를 증언해준다면 꺼져가던 불이 되살아나듯이 믿음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의 선교 실패 이후에 고린도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있던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마케도니아 교회를 탐방하고 돌아온 디모데와 실라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소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의 믿음입니다. 예배당에서의 모임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 현장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생활의 터전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생활화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당에서의 모임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쁨을 얻은 사람은 신바람 나는 고백을 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은 또 그로 인해 믿음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시도해도 그것이 삶의 현장에 적용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현장을 살리면 모임도 살아날 것입니다. 현장을 살려야 복음을 가진 자의 기쁨과 약속된 축복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남편이 아내를 살고 아내가 남편을 살듯이 우리가 성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삶의 현장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끓는 가마에 담겨 망하던 예루살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